

現代哲學과 『人間』 問題(5)

- 특히 『루넛산스』와의 關聯에서 -

朴致祐

그러나 大體 哲學이 人間의 問題와 絶緣한때가 잇섯든가? 哲學은 人間의 問題와 絶緣할 수 업지 안흔가? 그러타면 近者 哲學에 人間學的 傾向이 좀 이러낫기로 무엇이 그리 大書特記할 事件이 되랴라고 말할 사람도 或은 잇슬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우리의 主張과는 何等의 關係도 업는 말이다. 우리의 問題는 처음부터 哲學이 人間의 問題와 『絶緣』했느냐 말었느냐에 잇섯든 것이 아니라 人間의 問題가 哲學의 前面에 뒤어나왔느냐 말었느냐에 잇섯기 때문이다. 우리가 現代哲學의 가장 特徵的인 現象으로 人間學的 傾向의 擡頭를 指摘하였고, 이 現象을 單純한 一時的인 流行으로 보지 안코 그 속에 重大한 歷史的 社會的 意義를 차져보려고 힘썼든 것은 바로 이러한 意味에서 한 것이엇든 것이다.

그러나 轉換期에는 언제나 人間의 問題가 새로운 反省을 惹起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反省의 全部가 모조리 舊 人間『타입』의 『質的 止揚』을 目的삼는 그러한 根本的인 反省인 것은 아닌 것이다. 質的 止揚의 方法에 依한 根本的인 救濟를 합두고 거기에는 반듯이 許多한 量的 收良의 試行이 先行하는 法이다. 이러한 『先行』의 最終的인 企圖가 곳 所謂 實存哲學이라는 各稱으로 불녀지는 『하이텍겔』·『야스펠스』의 人間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實存哲學이 發見한 人間도 또한 그것이 本來 質的 止揚의 方法에 依하여 차져진 人間이 아니엇든 以上 새 時代의 人間은 못되는 것이다. 實存哲學은 單只 낡은 純粹人間에 새로운 옷(衣)을 입혔슴에 지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체 웨 일부러 『새로운』 옷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일까? 純粹 人間의 創造는 決코 오늘에 始作된 일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구태여 實存哲學만이 이러한 創造를 始作했다는 말은 아니다. 純粹人間을 創造한다는 한 개의 技術은 모-든 有閑한 哲學人의 高賞(?)한 趣味에 屬하는 事實이기 때문이다. 實로 『有閑性』이야말노 모-든 純粹 人間構成의 構成條件인 것이

다. 그러나 元來 갖흔 有閑에도 여러 가지 種類가 잇슬 것인 以上 그로말미
암아 構成될 純粹 人間에도 亦是 性格的 差異가 업슬 수 업는 것이다. 이러
한 意味에서 우리는 安定期의 市民人의 有間과 不向期, 絶望期の 그것과의
間에 混同못할 差異를 볼 수 잇는 것이며 따라서 거기서 만드러질 純粹 人
間의 性格에도 亦是 同一한 差異를 指摘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러면 大體 如
何한 性格的 差異를 우리는 安定期의 그것과 下向期の 그것과의 사이에서
차저 볼 수 잇는 것인가? 이것을 말하기 前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말하는
純粹 人間이란 大體 엇던 것인가를 좀더 具體的으로 말해들 必要가 잇슬것
갓다.

우리는 時空을 超越한 人間을 述語的으로 純粹 人間이라고 부를 수 잇는
것이다. 왜 인가하면 이러한 人間은 現實的인 人間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時間과 空間이란 것은 自然科學的 時空도 現象學
的 時空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時空은 現實的인 時空이 못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잇서서는 現實的인 時空은 자못 『實踐的』인 時空이 잇슬 뿐이다.
이러한 實踐的 時間의 가장 典型的인 것이 歷史 生成的 時間 即 歷史的 時
間인 것이며, 이러한 實踐的 空間의 가장 典型的인 것이 다름 아닌 社會 形
成的 空間 即 社會的 空間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時間과 이러한 空間만이
우리에게 잇서서는 가장 □□的이며 具體的인 時間과 空間 即 現實的인 時空
인 것이다.